현대소설연구(제9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3.12.92.35

북한의 전쟁문학 속 '공화국 영웅'

-군사적 이상형의 기원과 문화적 진화에 관한 연구

배 개 화*

요약

본 논문은 한국전쟁 초기에 발표된 전쟁문학 속 '공화국 영웅'의 초상이 북한의 군사적 이상형의 기원임을 조명한다. '공화국 영웅'이라는 명예 칭호는 북한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조속한 승리를 촉진할 목적으로 1950년 6월 30일 제정한 것이다. 이 칭호는 전투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조선인민군 군관과 병사에게 수여되었다. 8월 4일, '공화국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보급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북한 작가들은 '영웅들의 전투기' 1권과 2권을 펴냈다. 이 이야기들은 '공화국의 영웅들'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뿌리를 둔 애국심과 그의 탁월한 전략을 모방하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묘사한다. 이러한 서사는, 김일성이 '최고의 군사적 이상형'으로 등장하고, '공화국 영웅'이라는 칭호를 수여 받은 인민군 병사들이 김일성의 제자로 그려지는 의미론적 틀을 형성하였다. 1953년 8월부터 시작된 전후 복구과정과 1958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건설단계 전반에 걸쳐 '공화국 영웅'은 북한 주민들의 롤-모델로 적극적으로 선전되었다. 이어 '불멸의 역사' 시리즈는 김일성이 한국전쟁 승리의 지도자이자 조직자라는 관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서사를 제시하였다. 북한이 본격적인 군사국가로 전환한 김정일의 선군시대와 뒤이은 김정은의 선군혁명 시대에도 공화국 영웅들을 다룬 문학 작품들이 계속 출판되었다. 이 작품에서 수령은 최고의 군사적 이상형의 역할을 넘어, 영웅들의 애국적, 영웅적 행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자 이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상징적 아버지로 묘사된다. 한마디로 '공화국의 영웅' 서사는 한국전쟁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군사적 국가화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문화적 장치였다.

* 단국대학교 교수

주제어: 한국전쟁, 전쟁문학, 군사적 이상형, 김일성, 공화국 영웅, 군사국가화

목차

1. 서론: 전쟁문학과 군사적 이상형
2. 한국전쟁 초기 '공화국 영웅'의 제도화
3. 한국전쟁 초기의 공화국 영웅 서사와 그 특징
4. 공화국 영웅 서사의 계승과 발전
5. 결론: 군사적 이상형의 기원으로서의 '공화국 영웅'

1. 서론: 전쟁문학과 군사적 이상형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현재까지 종결되지 않은 전쟁으로서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70여 년간 북한은 언제 다시 시작될지도 모를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 국가화의 길을 걸어왔다.[1] 군사 국가화는 '군대식 담론과 운영 논리 및 방식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서 구현되고, 그 과정에서 구축된 군대식 질서 안에서 개인 및 집단의 의식과 행위 전반이 구조화되는 과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2] 이 논문은 북한의 군사 국가화는 '군사적 이상형'을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하고 군사적 이상형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교육하는 것을 동반하며, 전쟁문학은 군사적 이상형을 주민들에게 주입하는 문화적 수단이라고 본다.[3]

1) 김용현,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제1호, 2003, 181-198면.

2) 위의 글, 183-184면.

3) The other functions of war literature that often predominate are variously and often simultaneously moral, psychological, social. (…) Modern war literature (and, in the twentieth century, films), whether or not directed toward that end by their authors have acted on the imagination of the young to shape a sense of national purpose and inspire a bellicose spirit. (…) Military ideals have

군사적 이상형으로서 '공화국 영웅'의 기원은 한국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조선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였다. 1950년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 영웅'-현재도 북한의 최고 영예-이라는 칭호를 제정하였다.[4] 7월 15일, 38선 돌파와 서울 점령 등에서 영웅성과 애국심을 발휘한 군관들과 군인들이 최초로 '공화국 영웅' 훈장과 칭호를 받았다.[5] 이 칭호는 조선인민군 병사들의 전투 의욕을 고취하여 전쟁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상 제도의 하나였다.

이와 더불어, '공화국 영웅'을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따라야 할 도덕적, 군사적 이상으로 선전하는 일도 시작되었다. 1950년 8월 4일 김일성은 문화선전성 장관 허정숙에게 공화국 영웅들의 애국주의를 선전하는 출판물을 통해서 자신이 지도한 항일무장투쟁의 애국주의가 공화국 영웅들의 애국주의에 계승되었음을 선전할 것을 지시하였다.[6] 이에 따라 북한 문학자들도 공화국 영웅들의 전투를 그린 『영웅들의 전투기』 1과 2를 출판하였다. 이 전투기들은 공화국 영웅들이 전투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뿌리를 둔 애국주의와 그의 뛰어난 전술을 학습하고 따랐기 때문이라고 선전하였다.

이 전투기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김일성'은 '최고의 군사적 이상형'

---

gained wide spread support through personal models and historical examples, as indicated anecdotally or instilled through institutions such as military academies; Catherine Savage Brosman, "The Function of War Literature," *South Central Review*, Vol. 9, No. 1, Spring, 1992, pp. 86-87.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최고 영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1950.6.30.」, 『로동신문』, 1950.07.01.

5) 이 부대들은 1950년 8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부터 근위 [부대] 칭호를 받았다 (김두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950.8.17.」, 『정치상학교원들과 선전원들에게 주는 자료집』 2, 인민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8, 19-21면). 두 권의 『영웅들의 전투기』에는 총 13명의 공화국 영웅들이 소개되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근위 칭호를 받은 부대 소속의 군인이었다.

6) 김일성, 「전시환경에 맞게 문화선전 사업을 강화하자, 문화선전상과 한 담화 1950년 8월 4일」,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202-203면.

이며, '공화국 영웅'들은 김일성의 제자라는 의미 구조를 만들었다. 휴전협정 체결 무렵인 1953년 7월 28일에는 김일성도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음-최종적으로 4중 공화국 영웅이 됨-으로써 이러한 서사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후 군사적 이상형인 공화국 영웅과 그와 관련된 서사들은 김일성과 그의 그룹이 조선로동당에서 권력을 강화하는 것에 상응하여 재생산되었다. 전후에는 제대한 군인들을 통해서 '공화국 영웅'에 대한 일화가 선전 기관이나 학교에서 선전되었다.[7]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출판물들이 계속 출판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북한 문학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었다.[8] 이것은 크게 조선인민군의 애국심과 영웅성을 묘사한 작품과 전쟁을 지원하는 군무원이나 주민들의 애국심을 묘사한 작품으로 나뉜다. 첫째 유형의 작품들은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야 하며, 이는 김일성의 지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서사가 문학적 전통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9] 둘째 유형의 작품들은 다

7) 한국전쟁 휴전 이후 제대한 군인들이 전쟁 영웅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범으로 사회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들은 민주 선전실을 장악하고 선동원으로서 당과 국가의 시책을 충실히 전달, 선전, 교양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군사화의 전위대로서 활동하였다; 김용현, 「1950년대 북한사회 군사화의 내용과 성격」,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1호, 2002, 195-199면.

8) 배개화, 「한국전쟁기 북한문학의 '애국주의' 형상화 논쟁」, 『민족문학사연구』, 제73호, 민족문학사학회, 143-176면; 유임하, 「1950년대 북한 문학과 전쟁 서사」, 『돈암어문학』 20, 돈암어문학회, 2007.12, 188-216면; 유임하, 「'전승 60주년'과 북한문학의 표정」, 『돈암어문학』 26, 돈암어문학회, 2013.12, 7-35면; 오태호, 「전쟁과 평화의 변곡점, 1등주의 지향과 경쟁 담론의 형상화-2018년 『조선문학』을 통해 본 북한문학의 변화 양상」, 『상허학보』 58, 상허학회, 2020.2, 307-338면; 김민선, 「재생되는 전쟁, 반복되는 서사-한국전쟁 소재 북한 소설의 육체성」, 『사이間SAI』 29,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73-102면. 이 밖에도 남북문학예술연구회에서 편저한 『전쟁과 북한 문학예술의 행방』(역락, 2018)은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삐라, 화선 음악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전쟁문학을 연구하였다.

9) 서경석, 「6·25전쟁문학,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른가」, 『역사비평』 13, 1990(겨울호), 402면. 서경석에 따르면 이 유형의 작품이 황건의 『개마고원』(1956), 엄흥섭의 『통틀 무렵』(1958) 그리고 석윤기의 『시대의 탄생』(1964)과 리장후의 『전선』(1987)으로 북한문학사에서 계보화 되었다.

양한 직종의 군무원이나 주민들이 김일성이 내린 명령, 즉 자신의 임무를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10] 이러한 연구들은, 전쟁문학이 북한의 군사 국가화를 이끄는 문화적 도구 중 하나였다고 보는 필자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공화국 영웅' 서사의 기원과 그 문화 정치적 의의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전제로 이 논문은 한국전쟁 초기 출판된 『전쟁문학인 영웅들의 전투기』 1과 2가 전후 북한의 군사 국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공화국 영웅' 서사의 기원임을 조명하겠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본론에서 첫째, 한국전쟁 초기 이뤄졌던 공화국 영웅의 제도화; 둘째, 공화국 영웅 서사의 특징-최고의 군사적 이상형이자 애국심의 원천으로서의 김일성과 그의 유격대 전술의 우수성 선전; 셋째, 한국전쟁 이후 공화국 영웅 서사의 계승 양상과 이것이 북한의 군사 국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2. 한국전쟁 초기 '공화국 영웅'의 제도화

한국전쟁 초기에 북한의 전쟁문학의 중요한 서사적 요소들이 결정되었다. 첫째, 전쟁 개시 3일 만에 한국전쟁의 성격은 '내전'에서 '미제국주의'

그밖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오창은, 「한국전쟁의 현장을 형상화한 북한 전선문학의 대표작 안룡만의 『나의 따발총』」, 『근대서지』 7, 근대서지학회, 2013.02, 524-535면; 남원진, 「황건의 〈불타는 섬〉 재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5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40면; 김은정, 「북한의 영웅서사, 6년의 간극-〈조옥희〉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 2016.04, 475-501면.

10) 김은정은 2010~2015년에 출판된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위해서』 1~4 권에 수록된 소설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종의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이 내린 명령을 전선이나 후방에서 목숨을 걸고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이 작품집의 출간 취지는 김일성 탄성 100주년을 기념하고 강성대국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였다; 김은정, 「북한의 한국전쟁 소설에 나타난 국가 서사」, 『외국문학연구』 6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7.5, 9-34면

와의 전쟁으로 변했다. 둘째, '공화국 영웅'이 북한의 군사적 이상형으로 제도화되었다.

1950년 1월 30일, 김일성은 스탈린으로부터 전쟁 개시의 청신호를 받았으며, 이후 스탈린 및 모택동과의 논의를 거쳐 1950년 6월 25일 조선인민군은 38도선 전역에서 남침을 개시하였다.[11] 6월 26일 전 조선 인민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일성은 남한 군대의 공격으로 "동족상잔의 내란"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미제국주의의 하수인인 이승만 도당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통일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6월 27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원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그리고 7월 7일에는 미군 지휘 하의 UN군 통합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자 전쟁을 바라보는 북한의 관점은 동족상잔의 내전에서 미제국주의와의 전쟁으로 바뀌었다.[12] 특히, 7월 15일 이승만이 UN군 사령관에게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면서 전쟁의 당사자가 조선인민군과 UN군으로 바뀌었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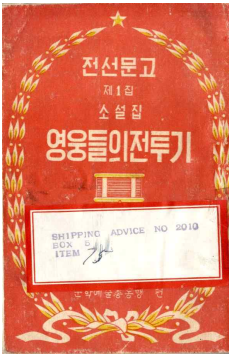
김일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선전 정책을 모방하여 '애국주의'를 선전 노선으로 정하고 전쟁의 신속한 승리를 위해 군인과 인민들에게 '애국심'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였다. 예를 들어, 6월 26일, 김일성은 라디오 연설에서 조선인민군에게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애국적 충성을 다하여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싸워야 할 것"을 호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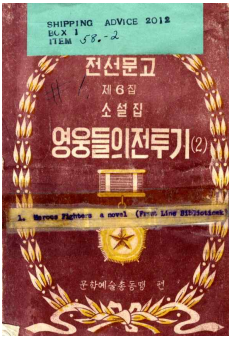
11) Donggil Kim, "Stalin's Korean U-Turn: The USSR's Evolving Security Strategy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4, no. 1 (June 2011), pp. 89-114.

12) 전쟁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7월 9일 라디오 방송에서 김일성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과 인민에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했다"라고 한 데서도 확인된다.

13) 이것을 피터 지마의 영웅서사 구조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조화될 수 있다.

전 세계 민주 사회 및 자유 애호 세력	→	조국 해방	→	전 조선 인민 (특히 남조선)
		↑		
소련, 중국 기타 사회주의 국가	→	김일성 혹은 조선로동당	→	미제국주의 하수인 이승만 정권





였다. 그는 다른 방송에서도 "우리 병사들의 애국주의는 용감성과 영용성의 무진장한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쟁 승리를 위해서 용감히 싸울 것을 재차 호소하였다.[14]

같은 목적에서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이하 공화국 영웅)이라는 칭호를 제정하고, 7월 15일부터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인민군 군관, 하사관, 그리고 전사에게 이 칭호를 수여하였다.[15] 「조선인민공화국 영웅 칭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화국 영웅 칭호는 "당과 국가에 대하여 위훈을 세우고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주의"를 보여준 자에게 수여되는 최상급의 명예 칭호이다.[16]

1950년 7~8월에 한국전쟁 발발 직후 38선 돌파와 6월 28일 서울 점령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인민군인 32명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와 훈장이 수여되었다. 7월 15일에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으로는 김군옥(북한 해군 제2어뢰정대 정대장), 김기옥(제56추격기비행연대 연대장), 김두섭(제105땅크사단 40호 땅크 중대장), 김봉호(제105땅크사단 정찰중대 분대장), 김일섭(제105땅크사단 정찰중대 조준수), 김

14) 김일성, 「조선 전체인민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 장군의 방송연설」, 『로동신문』, 1950.06.27, 1면;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우리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의 방송연설」, 『민주조선』 7월호, 평양: 민주조선사, 1950.7.15, 15면.

15) 김두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최고 영예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1950.6.30」, 『정치상학 교원들과 선전원들에게 주는 자료집』 2,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8, 4면.

16) 「조선인민공화국 영웅 칭호에 관한 규정」, 『정치상학 교원들과 선전원들에게 주는 자료집』, 5면.

진걸, 김홍엽, 리문순(제56추격기비행연대 파일럿), 리완근(북한 해군 제2어뢰정대 소속 22호 어뢰정장), 리훈(제4사단 제18보병 연대 연대장), 전기련(제105땅크 사단 운전수), 정학봉이다. 7월 19에는 리동규(제56추격기비행연대 파일럿)에게, 7월 26일에는 김시정에게, 그리고 7월 31일에는 강대기(제105땅크 사단 제33대대 정치문화선전원), 김정학, 리영호, 박영히(희?), 안동수(제105땅크 사단 문화 부사단장)에게 영웅 칭호가 수여되었다.[17] 또한, 8월 17일에는 강대운, 김경련, 김만일, 강성욱, 림영택, 안두호, 조종대, 조현구, 김광수, 김두칠, 리권춘, 리창해, 정병해에게 영웅 칭호가 수여되었다.[18] 한국전쟁 동안 총 인민군 군관과 병사들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 받았다.[19]

8월 4일, 김일성은 문화선전성 장관 허정숙에게 문화선전사업을 전쟁 승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시켜야 할 것을 지시하면서, "인민군대와 인민에 대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즉, 김일성은 항일유격대가 15년 동안 일제 침략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불타는 애국심과 강의한 혁명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설명하면서, 항일유격대처럼 인민군대와 인민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애국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0] 이를 위해서 전선과 후방에서 높

17) 이들 32명에 대한 공화국 영웅 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수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군관 하사관 전사들에게 조선 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 1950년 7월 1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군 리동규 비행사에게 조선 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 1950년 7월 1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군 김시정 하사관에게 조선 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 1950년 7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군관 하사관 전사들에게 조선 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 1950년 7월 31일」, 『정치상학 교원들과 선전원들에게 주는 자료집』 2, 25-35면.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군관 하사관 전사들에게 조선 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 1950년 8월 17일」, 『정치상학 교원들과 선전원들에게 주는 자료집』 2, 36-37면.

19) 박태영 외 8명, 『공화국 영웅전』 1, 조선민주청년동맹 편, 민청출판사, 1958, 12면. 이밖에도 74만 6,000여 명의 군무자들이 각종 훈장과 메달을 수여 받았다.

20) 김일성, 「전시환경에 맞게 문화선전 사업을 강화하자, 문화선전상과 한 담화 1950년 8월 4일

이 발휘되고 있는 "인민군 군인과 인민들의 숭고한 애국적 헌신성"에 대해서 선전할 것을 지시하였다.[21)]

한국전쟁 초기 만들어진 '공화국 영웅' 칭호는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수여되었으며,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배워야 할 군사적 이상형으로 제도화되었다. 또한, 김일성이 공화국 영웅들이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의 '애국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전투에서 영웅성과 애국심을 발휘하였다는 전쟁문학의 기본 서사 구조를 직접 제시하였다. 이것은 향후 북한의 군사 국가화를 이끄는 서사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된다.

3. 한국전쟁 초기의 공화국 영웅 서사와 그 특징

김일성의 8월 4일 지시에 따라, 북한 문학 비평가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김일성의 애국주의야말로 최고의 군사적 이상형이자 '애국주의'의 전형이라고 창작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소설가들은 '공화국 영웅'에 관한 문학에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영웅들이 발휘하는 영웅성과 애국심의 원천이며, 이들의 뛰어난 전술은 김일성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1) 최고의 군사적 이상형이자 애국심의 원천으로서의 김일성

우선, 비평가 안함광은 전쟁 승리를 위한 선전 노선은 '애국주의'이며 김일성의 애국주의 사상이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 분쇄하여 조국의 완전 통일을 쟁취"

」, 202-203면.

21) 그 밖에도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비타협적 투쟁 정신, 그리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고 “조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 인민은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선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22] 이어서 그는 소설 문학이 김일성의 애국적 형상을 묘사하는 것은 “인민들의 부절한 승리적 실천을 자극하며 고무하며 지도하며 촉진”하기에 소설가들은 작품을 통해 “민족의 영웅 김일성 장군의 문학적 형상을 널리 대중 가운데 침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족의 영도자인 김일성에 대한 맹세는 북한 주민들이 발휘하는 애국심의 원천이기에, 김일성이 테마가 아닌 작품에서도 “언제나 민족의 영도자에 대한 감격적 맹세”가 암묵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23]

엄호석도 「조선문학과 애국주의 사상」에서 ‘애국주의’는 미제의 침략에 반대하여 싸우는 조선 인민의 사상이자, 조국을 사랑하는 데에 누구보다도 선봉적이며 용감한 애국자들의 핵심적 부대로서 조직된 조선로동당의 사상이라고 주장하였다.[24] 그에 따르면, 이러한 북한의 애국주의 사상의 전형은 “중국의 동북 변경에서 민족의 영예를 끝까지 지키면서 용감하게 싸운 김일성 장군과 그의 빨치산들”이며, 이들은 “그 영용한 투쟁으로서 조국 인민의 애국주의 사상을 고무”하였다. 특히 그는 “김일성 장군은 민족의 절세의 애국주의자로서 새로운 애국주의를 혼신 체현하였을 뿐 아니라 해방 전후를 통하여 애국주의의 진정한 기수로서 조선 인민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따라서 작가들은 이런 가르침 덕분에 인민군대와 인민들

22) 안함광, 「8.15해방 이후 소설문학의 발전과정」, 『문학의 전진』, 1950.8; 재수록 『현대문학비평자료집』 2, 이선영 · 김병민·김재용 편, 태학사, 1993, 7면.

23) “민족의 영웅 김일성 장군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의 중심이며 태양이어서 조국의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민족의 영도자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감격적 맹서로서 조국 창건을 위한 일체의 애국주의적 실천의 원천을 사는 것이다. 이에 있어 김일성 장군을 형상화함에 의하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를 우러러 받는 만 인민의 헌신적 맹서를 더욱 굳건히 하며 만 인민의 고상한 애국주의적 사상을 더욱 치열히 불타오르게 하는 의의는 실로 심중한 바가 있는 것이다”; 위의 글, 24면.

24) 엄호석, 「조선문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의 전진』, 1950.7: 재수록 『현대문학비평자료집』 1, 이선영 · 김병민·김재용 편, 태학사, 1993, 475-479면.

이 전쟁에서 애국심과 영웅성을 발휘하였다는 점을 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5]

작가들도, 김일성의 8월 4일 지시에 따라서, 『영웅들의 전투기』 1(문화전선사, 1951년 8월 25일)과 『영웅들의 전투기』 2(문화전선사, 1951년 9월 13일)를 출판하였다. 이 전투기들은 공화국 영웅들이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보여준 애국주의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묘사하였다. 예를 들어 「영웅 안동수 군관」은 안동수가 서울을 점령한 후 계속 남진할 것을 주장하면서 "동무들! 놈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무기가 없다. 그것만 놈들에게 구비되었던들 우리는 전진 못할지 몰랐다.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고상한 애국주의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피 끓는 희생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묘사했다.[26]

무엇보다 영웅들의 전투기들은 이러한 애국심은 최고사령관인 김일성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영웅 정학봉 분대장」은, 인민 군인들이 38선 전역에 걸쳐 국군이 침공을 개시했으니 이들의 진격을 격퇴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김일성의 명령을 듣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쳐 놈들의 침공을 용감하게 물리쳐야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을 묘사하였다.[27] 「영웅 전기련 하사관」은 공화국 영웅들의 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명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였다.[28] 「중기사수 김정학 영웅」도 김일성 앞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최후의 숨결까지 바치리라고 맹서한 군인 선서를 그는 언제나 잊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념원"해온 것이 그의 영웅성과 용기의 원천으로 묘사하였다.[29] 특히 1950년 7월 1일 북한 해군의

25) 위의 글, 479-480면

26) 고일환의 「영웅 안동수 군관」, 『영웅들의 전투기』 2, 문화전선사, 1950.9, 121면.

27) 천청송, 「영웅 정학봉 분대장」, 『영웅들의 전투기』 1, 문화전선사, 1950.8, 108면.

28) 김일성, 「조선 전체 인민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 장군의 방송연설」, 『로동신문』, 1950.06.27, 1면.

주문진 전투를 배경으로 한 「격침」은 공화국 영웅들의 애국주의가 김일성 장군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임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였다: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께서는 조국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적함 격멸의 영광스러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
> **김일성 장군은 동무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에도 오늘에도 조선민족승리의 조직자이시며 령도자이십니다.** 장군의 명령이 내릴 곳에 패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꼭 승리합니다. (중략) 사령관의 격려에 대하여 김군옥 정대장은
>
> "제2어뢰정 대원일동을 대표하여 나는 미국 군함 격침을 맹서합니다." 하고 간단히 서약하였다.(강조-인용자)[30]

윤세중도 「휘날리는 공화국 깃발」도 강대기 군관이 "맨 선두로 나서는 땅크에 몸을 싣고, 죽엄을 초월한 화신처럼 땅크 위에 서서 전사들을 지휘할 수 있었던 용기"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묘사했다: "동무들 더욱 용감하시오. 용기를 내시오. 조국을 위하여 우리 부모형제를 위하여! 김일성 장군을 위하여—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포탄은 용감한 사람을 피합니다—."[31]

더 나아가 『영웅들의 전투기』 2권에서는 공화국 영웅의 애국주의는 김일성이 지도한 항일무장투쟁의 애국주의를 계승한 것으로 묘사한다. 조선인민군의 수원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웅 리훈 대장 전투기」는 지휘관 리훈 대장이 김일성 휘하의 "빨치산 부대 출신"이며, 그의 탁월한 지휘는

29) "그는 공병삽을 힘있게 잡았다. 이것으로라도 패잔 도주하는 미국놈의 앞잡이 하나둘쯤은 소탕할 수 있겠거니 하는 생각에 그의 전투 의식은 다시금 고조되었다. 흥분 속에서도 그는 **조국을 위하여** 최후의 숨결까지 싸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을 느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최후의 숨결까지 바치리라고 맹서한 군인선서를 그는 언제나 잊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념원해왔다."; 유항림, 「중기사수 김정학 영웅」, 『영웅들의 전투기』 1, 133-134면.

30) 한설야, 「격침」, 『영웅들의 전투기』 1, 12-13면.

31) 윤세중, 「휘날리는 공화국 깃발」, 『영웅들의 전투기』 2, 67면.

김일성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김일성을 생각하며 용기와 해결책을 찾은 덕분으로 묘사한다.[32] 「불굴의 투지로서-김홍엽 분대장」은 의정부 제2방어선 돌파 전투에서 김홍엽 분대장이 1개의 소대(36명)로 국군 1개 대대를 완전히 격멸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사랑하는 전우들!
> 경애하는 수령을 위하여 승리를 맹서합시다."
> "맹서합시다!"
> 잠시 삼림같은 총장이 별빛 아래 일체히 번득이였다.
> 오오! 이 얼마나 숭고한 조국에 바치는 불멸의 맹세인가.
> 이처럼 **백두산의 전통을 계승받은 이 땅의 영용한 아들딸들**은 불굴의 투지로써 조국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진격을 계속하였다.(강조-인용자)[33]

「결사의 한강도하」도 6월 25일 새벽 조선인민군은 "민족의 수령이신 김일성 장군의 그 애국적 정신과 유격 전통을 이어받은 불사 불패의 군대"라는 자긍심을 갖고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조국을 위하여" 바칠 것을 결의하고 38선을 넘는 것을 묘사하였다.[34] 또한, 한강 다리가 끊어진 악

32) "수령이시여——" 리훈 대장은 잠간 눈을 감았다. 김일성 장군 -그는 오래인 항일투쟁을 장군의 아래에서 자라왓으며 오늘까지 긴 혁명적 전사로서 장군의 지휘 아래서 싸와온 그다. 그는 전투에 있어서 언제나 큰 성과를 얻었을 때도 장군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리며 가장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는 장군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리갑기, 「영웅 리훈 대장 전투기」, 『영웅들의 전투기』 2, 89면.

33) 임순득, 「불굴의 투지로서-김홍엽 분대장」, 『영웅들의 전투기』 2, 142면.

34) "동무들 우리는 공화국의 씩씩한 아들들이오.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민족의 수령이신 김일성 장군의 그 애국적 정신과 유격 전통을 이어받은 불사 불패의 군대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은 끝까지 원쑤들을 무찔러 엎으며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 승리의 공화국 국기를 꽂아야 하오. 동무들 진격이요."; 현경준, 「결사의 한강도하-영웅 김일섭 전투기」, 『영웅들의 전투기』 2, 165면.

조건하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부대를 도하시킨 김일섭 하사의 영웅성 역시 자기가 “김일성의 부대”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묘사를 통해 작가는 김일성이 영웅의 애국심과 영웅성을 고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5)]

한마디로, 한국전쟁 초기 출판된 공화국 영웅들의 전투기는 영웅들의 전투에서 발휘한 영웅성과 애국심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원천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김일성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묘사한다. 이것은 전후 복구 시기에서 현재까지 반복되는 ‘공화국 영웅’ 서사의 원형이 된다.

2) 조선인민군의 전투 및 사상 교양 방식의 우수성

한국전쟁 초기, 총사령관인 김일성의 지휘하에서 조선인민군이 UN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하였다. 이에 편승하여 전쟁문학도 조선인민군의 현대적 전투기술의 우수성을 선전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유격대식 사상 교양과 전술’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전쟁 초기 군대 내 정치 교양의 특징은 민족보위성의 문화훈련국이 인민군대 내 군사 규율과 정치 교양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구체적인 인민군대 내 정치 사업은 문화훈련국 소속 문화 부사령관이 담당하였다. 한국전쟁 초기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인민군 군인 중에는 사령관뿐만 아니라 “문화 부사령관”-안동수, 강대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영웅들의 전투기에는 전투를 지휘하는 사령관과 함께 정치사상 분야를 담당하는 “문화 부사령관”이 등장한다. 1950년 10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설치되고 박헌영이 총정치국장이 되어 군의 사상 교양을 담당하기 전까지, 김일성의 측근 김일이 문화훈련국 국장으로서 군대 내 정

35) 위의 글, 165면.

치사상 교양을 담당하였으며, 그 교양 방식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교양 방식이었다.[36)]

영웅들의 전투기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지휘관과 선전원(문화 부사령관)이 전사들과 "전투의 정당성을 토론"하는 것과 같은 유격대식 사상 교양 방식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명령 전달-〉 전투의 의의 설명 -〉 유격대나 인민군이 영웅성을 발휘한 전투의 예시 제시 -〉 지휘관의 격려 연설 -〉 김일성에 대한 맹세 혹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 합창-〉 구체적인 전술 설명의 순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1950년 7월 1일 북한 해군의 주문진을 배경으로 한 한설야의 「격침」을 보면, 어뢰정의 대장은 전투 개시 전에 대원들에게 전술을 설명하고, 문화 부대장은 대원들과 전투의 의의를 토론한다. 이어서 사령관이 연설하고, 마지막으로 어뢰정 대장은 전체 대원을 대표하여 김일성에게 승리를 서약한다. 「영웅 정학봉 분대장」 역시 조선인민군의 유격대식 교양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학봉 분대장은 38선 전역에 걸쳐 국방군들이 침공을 개시했으니 놈들의 진격을 격퇴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중대장의 명령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바로 전투에 돌입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적들이 삼면에서 침공해 옵니다"라는 잠복병의 보고나 토목 화점 가까이 포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청 선동원의 보고와 전사들의 토론을 진행한다.[37)] 분대가 38선을 돌파하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도, 정학봉은 전사들과 전투의 의의를 토론하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나서야 구체적인 전술을 설명한다.[38)]

영웅들의 전투기는 조선인민군의 유격대식 전투방식도 잘 묘사하고 있

36) 1950년 10월 21일 조선로동당이 총정치국을 조선인민군 내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인민군대 내의 정치교양 사업은 인민무력부의 문화훈련국에서 담당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재홍의 「6·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군사』 53, 2004.12)의 145-152면 참조.

37) 천청송, 「영웅 정학봉 분대장」, 『영웅들의 전투기』 1, 111-112면.

38) 위의 책, 118면.

다. 이것의 특징은 부대 최고 지휘관이 최전선에서 전투를 지휘한다거나, 탱크가 다른 중화기나 보병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최선두에서 전선을 돌파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전투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가 고일환은, 제105탱크사단 문화 부사단장 안동수가 최전선의 선두에서 직접 지휘하는 것-이것은 리훈이나 강대기 등 다른 지휘관의 특징이기도 함-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자본주의 군대와는 다른 인민군대의 우월성의 증거라고 찬양한다. 즉, 작가는 자본주의 군대는 대대장까지만 제일선 지휘를 담당하고 부대의 참모급 고급 장교는 최전선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민군대는 "전사보다 지휘관들이 앞을 섰"으며 전황이 엄중한 때에는 "부대장까지도 제일선에 섰"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사령관이 "작전을 지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직접 전투장에서 검열 지휘 집행하는 실질적 전술 방법"으로 인민군대의 승리의 원인 중 하나라고 찬양한다.[39] 이런 이색적인 전술 운용은, 지휘관이 탱크부대를 운영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안동수 구분대장(연대장)이 지휘하는 제105탱크부대의 의정부 점령 작전을 묘사한 것을 보자.

> 이글거리는 한나절 불볕 속을 안동수 군관이 탑승한 탕크는 여전히 최선두에서 의정부 고지를 다리고 있었다. 여기는 적정이 듣던 대로 고지의 령마루선이 거의 다 영구화점의 성곽으로 빵—둘리웠다. 중복선에도 토목화점들이 구축되어 물샐틈없는 방어진지다. 더구나 의정부로 넘어가는 고갯길 좌우편으로는 축성한 높은 성새가 중무기를 포치하고 으르떡떡거릴 형편이었다.
>
> **이쯤 되면 전술 상식으로 보아 으레 주력부대를 기다려 우회 작전을 꾀한다든지 구분대(연대)의 일제 엄호 사격 밑에 중심을 뚫른다고 하는 게 통례였다.**
>
> **그러나 안동수 군관은 이렇게 명령했다. "전 화력을 집중하며 전속력**

39) 고일환, 「영웅 안동수 군관」, 『영웅들의 전투기』 2, 108면.

으로 전진 또 전진!"

이 명령은 전투원들에게 좀 떨했다. 그러나 평소에 안동수 군관의 자신만만한 전투기술을 믿는 그들은 전 신경을 긴장시켜 눈과 귀와 발이 번쩍번쩍 움직였다.[40] (강조-인용자)

이러한 전술은 공화국 영웅 훈장을 받은 제105탱크부대 전기련 탱크 운전수나 김두섭 탱크 중대장의 전투기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의정부 전투에서 전기련의 탱크는 보병의 엄호 없이 "탱크 단독"으로 국군의 제2방어선 화점을 향하여 대담하게도 돌진해 들어간다. 전기련은 국군의 포탄이 자신의 탱크를 피해서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홀로 국군 진지 깊숙이 들어가서 화점들을 파괴하고 군인들을 살상하였다. 하지만, 이 전투로 전기련의 탱크는 크게 파손되어 폐기된다.[41] 김두섭 중대장 역시 문산지구 전투에서 중기 화점 2개소와 토목 화점 4개소를 완전히 파괴하고 서울에 가장 먼저 도착하겠다는 목표로 "전속력으로 전진!"을 외치며 최전선에서 국군 백골 부대의 방어선을 돌파하였다.[42]

당시 소련군이나 중공군의 공격 전술은 정찰 부대가 전방으로 진출하여 적의 주요 화점을 파악하면, 포사격으로 주요 화점을 파괴한 후 보병부대가 탱크를 엄호하며 협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초기 다수의 공화국 영웅을 배출한 제105탱크부대의 전술은, 탱크들이 보병부대의 엄호 없이 단독으로 전방으로 진출하여 탱크의 포사격으로 한국군의 화점을 파괴하면서 전선을 돌파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전쟁 초기, 조선인민군은 이러한 탱크 운용으로도 전선을 쉽게 돌파하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탱크 단독으로 전방에 진출하는 것은, 작가 고일환이 지적한 것

40) 위의 책, 114-115면.
41) 윤세중, 「영웅 전기련 하사관」, 『영웅들의 전투기』 1, 94-102면.
42) 고일환, 「김두섭 땅크 중대장」, 『영웅들의 전투기』 1, 151-152면.

처럼 전술 상식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적의 십자 포화에 탱크가 파손될 위험도 안고 있었다.[43] 예를 들어 수원 전투를 묘사한 「영웅 리훈 대장」을 보면, 조선인민군 제4사단 제18보병 연대 리훈 연대장은 항상 부대의 최선두에서 부대를 지휘하였으며,[44] 수원을 점령할 때도 기갑부대와 함께 최선두에서 진공하였다. 그런데, 리훈의 부대가 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산마루에 도착했을 때, 기갑부대는 국군의 화망에 들어가 연달아 파괴되었다. 이 때문에, 리훈 연대장은 탱크부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병부대만으로 진공하여 수원을 점령하였다.

> "사모았트 [탱크] 부대 일단 후퇴하라"
>
> 리훈 대장은 그 순간 사모았트 부대의 후퇴를 명령하였다. 반땅크포 수류탄 중기의 집중 사격에 대하여 사모았트의 장갑력으로서는 도저히 저항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전후로 적의 화망에 포위된 체제이다.
>
> 리훈 대장은 혼자서 잇발을 한발 깨무렀다. 적이 이러한 간계를 쓴 것은 사실 이의이기도 하나 **사모았트 부대가 자기의 기동성을 믿고 보병의 엄호를 리탈하여 지나치게 돌진한 잘못도 없지 않았다.**[45]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전쟁 초기의 공화국 영웅의 전투기들은 한국전쟁 초기 조선인민군의 '유격대식' 사상 교양과 전술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950년 11월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후 이

43) "이런 집중포화속이면 어쨋든 전진할수 없는게 땅크의 통례이다. -포탄으로 길이 한길로 패이든 조준경이 깨지든 무한궤도가 끊어지든 가도크(고무바퀴)의 요진통이 고장나든 했을깨다."(위의 글, 151-152면)

44) 리훈 제18사단장은 안동수 제105탱크사단 문화 부사단장처럼 "언제나 몇 개의 수류탄을 앞허리에 꽂고 부대의 전면에서" 전투를 지휘하였다. 그는 "대장동무 너무 앞으로 나가는 것도 삼가주시오."라는 참모의 고언에도 언제나 선두에서 전투를 지휘하였으며, 이것은 그의 부대 병사의 투지와 용감성을 고무하였다; 리갑기, 「수원-영웅 리훈대장 전투기」, 『영웅들의 전투기』 2, 81-83면.

45) 위의 글, 92-93면.

러한 전술은 중조연합사령부 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46] 하지만, 한국전쟁 정전 이후 김일성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조선인민군이 항일무장투쟁의 애국주의 정신과 뛰어난 전술을 계승하여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공화국 영웅들은 김일성의 가장 뛰어난 제자라는 서사가 확고해졌다.

4. 공화국 영웅 서사의 계승과 발전

한국전쟁이 끝난 후, 공화국 영웅들을 군사적 이상형으로 만드는 작업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공화국 영웅들에 대한 출판물도 계속해서 출판되었으며, 김일성이 공화국 영웅의 최고 모범임을 묘사하는 "불멸의 력사" 총서도 차례차례 출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출판물들은 인민들에게 군사적 이상형을 교육하는 데에 쓰였다. 1992년 수령의 지위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2012년에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세습되는 과정에서도 '공화국 영웅'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인물로 계속해서 호명된다.

1955년 조선작가동맹은 한국전쟁 기간 출판된 전쟁소설들을 모아서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단편소설집을 출판하였다.[47] 1956년에는 조선민주

46) 이 내용은 1951년 1월 4일 중국인민지원군이 서울을 재점령하면서 조선인민군 내부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전술에 대한 선호 경향이 조성되면서 발생했던 김일성과 연안파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월 11일, 중조연합사령부 정치부사령관이었던, 연안계의 박일우 내무상은 중국인민지원군과 연합작전을 하는 일부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이 유격대식 전투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北京: 解放軍文藝出版社, 1991, 101面). 연안계의 방호산 제5군단장도 1월 중순의 군단 연합회의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 쓰는 전투방식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1951년 1월 28일 조선인민군 지휘관 및 정치 일꾼과의 대화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전술을 따르자는 사람들을 "교조주의자"로 비판하였다. (김일성, 「우리의 전법으로 싸워야 한다: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들과 한 담화, 1951.1.28.」, 『김일성 선집』 13,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94-95면)

47)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도강」(권정룡), 「사냥꾼」(김만선), 「화식병」(김영석), 「뻑다

청년동맹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내각 결정 7호로써 공화국 영웅들이 졸업한 학교나 고향에 그들의 이름을 붙였다. 예를 들어 순천고급중학교를 리수복고급중학교로, 원산제1고급중학교를 조군칠고급중학교로, 박원진 영웅의 출생지인 평안북도 구성군 길상리를 원진리로 개칭하였다. 이것의 목적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용하게 투쟁한 청년 영웅 용사들의 빛나는 공훈을 우리 조국 력사에 영원토록 기념하여 자라나는 후진들에게 그들을 본받아 고상한 애국주의와 대중적 영웅주의의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였다.[48] 동일한 목적에서, 1958년 2월 민청중앙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창건 10주년을 기념하여 모범적인 초급 민청 단체들에게 공화국 영웅-한계렬, 황규찬, 김창걸, 황순복, 김재경-의 이름을 수여하였다. 조국 보위 후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도 함경북도 어랑리 봉강리 초급단체에 강호영의 이름을, 그리고 평안남도 남포시 남포 고급 중학교 초급단체에 리동규의 이름을 수영하였다.[49]

1958년 8월 북한은 농업, 공업 및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료하고 공식적으로 계획경제를 운영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배급제를 시행하였다. 1958년 4월 조선민주청년동맹은『공화국 영웅전』1과 2를 출판하였다.

이러한 출판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청소년들 속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할 것"을 교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공화국 영웅전』1의 서문에서 편집자는 북한이 소위 '조국해방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4개의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그 원인은 첫째, 맑스-레닌주의 당인 조선로동당이 전쟁 승리의 조직자이자 영도자라는 점, 둘째, 북한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정치 경제적 위력, 셋

구 장군」(김형교), 「회신 속에서」(류근순), 「강」(리갑기), 「궤도 우에서」(리종민), 「상급 전화수」(박웅걸), 「제2전구」(박태민), 「첫눈」(변희근), 「직맹 반장」(유항림), 「구대원과 신대원」(윤세중), 「조옥희」(임순득), 「아버지」(한봉식), 「승냥이」(한설야), 그리고 「불타는 섬」(황건)

48) 박태영 외 8명,『공화국 영웅전』1, 조선민주청년동맹 편, 민청출판사, 1958, 13면.

49) 위의 책, 13면.

째, 조선인민군의 존재, 넷째,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 및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이다.[50] 조선로동당이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의 조직자로 제시된 것은 1956년 3월 소련공산당 서기장 흐루쇼프 (N. Khrushchev)가 개인숭배를 비판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김일성의 애국주의 사상과 그의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이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하는 영웅주의와 애국주의의 원천이라는 점이 전쟁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다:

> 김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지도된 항일빨치산 투쟁은 조선인민군의 조직적 사상적 기초를 쌓아놓았으며 그[김일성]의 빛나는 혁명적 애국 전통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인민군 장병들의 무비의 영웅주의와 애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고무적 력량으로 되었으며 그들에게 백전 불굴의 힘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북돋아 주었다.[51]

이것은 조선인민군이 김일성이 지도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전투에서 애국주의와 영웅성을 발휘하였다는 한국전쟁 초기의 애국주의 선전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국 영웅전』은 한국전쟁 초기 영웅전의 핵심적인 의미소를 반복해서 사용하였다. 즉, 공화국 영웅은 병사들에게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투쟁을 이야기를 해주어 애국심과 전투 방법을 가르친다, 전투 전 영웅과 병사들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힘을 얻는다, 영웅은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처럼 전투하면 승리한다고 부대원들을 격려한다, 병사들은 김일성 장군에게 승리를 맹세하고 전투를 개시한다. 공화국 영웅 리대훈-황건의 「불타는 섬」의 주인공이기도 함-에 관한 전투기는 위의 의미소

50) 위의 책, 11-12면.

51) 위의 책, 12면.

들을 모두 포함한 전형적 서사를 보여준다. 1950년 8월 말 리대훈은 해안포 중대의 중대장으로 월미도에 배치된다. 9월 13일 연합군이 인천상륙작전의 일환으로 월미도를 공격하자, 그는 각 포진지에 전화를 걸어 "김일성 장군께서 지도하신 항일 빨찌산 투쟁은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운 난관이라도 돌파할 줄 아는 힘을 부어주었소. 우리들의 침묵은 용감한 공화국 포병들의 결정적 공격을 위한 침묵이며 원쑤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기 위한 승리의 침묵이요!"라며 격려한다.[52] 9월 14일에는 전날의 전투로 20여 명밖에 남지 않은 부대원들이 기운 없고 우울해하자, 그는 그들의 전투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른다.[53] 그는 또한 9월 15일 최후의 전투에서도 "동무들! 최고 사령관 김일성 장군 앞에 드린 우리의 엄숙한 맹세를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마시오. 원쑤들을 한놈이라도 더 잡고 놈들의 진격을 한 초라도 더 지체시키시오.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께서는 이 월미도 전투를 우리들의 투쟁을 바라보고 계실 거요. 용기를 냅시다. 원쑤들에게 죽음을 줍시다."[54]라고 격려한다. 이 전투기는 한국전쟁 초기 전투기의 서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리대훈과 부대원들의 영웅성은 "당과 조국과 인민 대한 무한한 충직성," 특히 "당에 대한 충직성"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한다.[55]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개인숭배 비판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김정일의 주도로 공화국 영웅은 군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일반이 본받아야 할 이상형이 된다. 1972년 2월 당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공화국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

52) 리지명, 「월미도의 영웅들-리대훈 영웅」, 『공화국 영웅전』 2, 조선민주청년동맹 편, 민청출판사, 1958.8, 45면.

53) 위의 글, 53-54면.

54) 위의 글, 58면.

55) "세계 전사에 그 류례가 드문 이러한 영웅성은 오직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우리 조선 인민군 전투원의 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을 증시하는 것이며 나라의 주인된 우리 조선 인민들의 불굴의 투지를 세계에 시위하는 것이다."; 위의 글, 59-60면.

으면서 후계자로서 인정받았다.[56] 1974년부터는 김정일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로써 '항일유격대 방식'은 당과 군대를 넘어서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군사적 행동의 표준과 전투적인 정신을 심어주는 '도덕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하였다.[57] 이에 따라, 한국전쟁 초기 『영웅들의 전투기』에서 김일성의 애국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따랐기 때문에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으로 선전된 '공화국 영웅'들은 사회 전반에서 여타 주민들의 롤-모델이 되었다.[58] 또한, 한국전쟁 초기 애국주의 선전과 관련해서 비평가 안함광이 제시한, 소설 문학에서 김일성의 형상을 창조하고 그것을 대중 가운데 침투시키는 것의 의의는 1970년대에 시작된 '불멸의 력사' 총서의 교육적 의의로 계승되었다. 이후 김일성의 혁명 서사는 선군과 강성대국이라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되었다.[59]

특히, '불멸의 역사' 총서 중, 한국전쟁 관련 소설들은, 김일성이 인민군 총사령관으로서 뛰어난 영군술과 "탁월한 군사전략"으로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발발 후 2개월 동안을 묘사한 『50년 여름』(1990)은 김일성을 "무비의 담력으로 적들을 칠 대담한 작전을 짜며 몸소 최전선에까지 나와서 인민군 전사들을 영웅적 위훈에로 고무하는 걸출한 군사 전략적 예지와 영군술"을 가진 인물로 묘사한다. UN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략적 후퇴 시기를 그리고 있는 『조선의 힘』(1992)은 김일성의 측근들이 그가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백 번 싸워

56) 고태우, 『북한현대사 101 장면』, 가람기획, 2000, 261-264면; 강진호, 「총서라는 거대서사 혹은 허위 의식」, 『상허학보』 24, 상허학회, 2008.10, 18면.

57) 와다 하루끼, 서동만 역, 『북조선: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돌베개, 2002, 142면,

58) 현재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은 단지 군사적인 업적을 이룬 인물뿐만 아니라 체육 선수 등과 같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으로 원동력으로 삼아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도 수여되고 있다.

59) 강진호, 「'총서'라는 거대서사 혹은 허위의식」, 『북한의 문화 정전, 총서 불멸의 력사』, 소명출판, 2009, 20-21면.

백 번 이긴다는 신념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1951년을 묘사한 『푸른 산악』(2002)은 일부 군사지휘관들이 적극적인 진지 방어전이라는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에 반대하고 중국의 운동전을 모방한 '기동전'을 벌이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묘사했다.[60] 『승리』(1994)는 김일성이 아이젠하워의 신 공세와 조선로동당 내에 침투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전쟁을 종국적인 승리로 이끄는 과정에서 보인 군사적 천재성과 영도력, 그리고 인민군 장병들이 지닌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인민들의 불타는 애국심으로 묘사하였다. 이 소설들에서 전략적 후퇴 시기 조선인민군이 보였던 무질서와 규율 부족, 1951년 1월 4일 중국인민지원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연안파가 제기했던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식 교양과 전술 운용에 대한 문제 등은 모두 삭제되어 있다.

2008년에는 안홍윤이 조옥희에 관한 장편소설 『조옥희』를 발표하였고, 이것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33회에 걸쳐 잡지 『천리마』에 연재되었다. 조옥희는 1950년 하반기 황해남도 지남산 인민유격대로 활동하다 정찰 임무 중 미군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1년 3월 7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첫 공화국 영웅이 되었다. 1951년 6월, 임순득이 「조옥희」라는 제목으로 『문학예술』에 출판하였다. 당시, 이 소설은 한설야로부터 조옥희가 영웅성을 발휘하게 만드는 내적 동기를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61]

> -상윤아 네가 크면 오늘 밤, 엄마의 심정을 알아주겠지. 할머니 모시고 잘 자라야 한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도 한껏 잘 싸우리라.
>
> 혼자 중얼거리며 장군의 사진을 끄냈을 때는 고만 옥희는 이 때까지 용케 참었던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한동안 소리없이 느끼고난 옥희는

60) 강진호 외, 『총서 '불멸의 력사' 해제집』, 소명출판, 2009, 531, 559, 577면.

61) 「영웅형상화에 대한 문제-문예총 영웅형상화에 대한 연구회에서」, 『로동신문』, 1951.10.29.

장군의 모습을 들여다 보며 자기가 무엇 때문에 빨찌산에 가담할 것이 결의하였는가. 더욱 절실히 깨달은듯 하였다.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청춘을 바쳐 싸우신 당신을 본받아 인민의 한 사람인 저도 어찌 그 길을 따르지 않으리까.[62]

또한, 그녀는 미군의 모진 고문에서도 당원으로서의 긍지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수령 김장군 만세"를 외치고 죽는다. 이것은 조옥희가 빨치산에 참여하고 영웅으로서 죽을 수 있었던 내적 동기가 '김일성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주제를 전달한다. 이것들은 당시 김일성이 요구한 공화국 영웅의 형상화 방향에 충실한 것이었다.[63] 이러한 서사에 힘입어 그녀는 비록 유격대원이긴 하였지만, '군사적 이상형'-혁명의 절개를 지킨 영웅-으로서 반복해서 호출되었다. 심지어 그녀는 1975년 이후 혁명열사릉에 안장되는 등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안홍윤의 작품에서 조옥희의 유격대 참여 동기는 '김일성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김일성이 베푼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이 소설은 유격대 활동 이전의 서사를 통해서 조옥희가 지남산 유격대에 지원하는 이유를 차곡차곡 쌓아간다. 우선 김일성은 토지 개혁 과정에서 소작농인 그녀가 지주와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존재로 묘사된다.[64] 무엇보다 김일성은 여러 가지 개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푼 은인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조옥희와 다른 13명의 여성이 지남산 유격대에 지원하는 문제를 토론할 때 한 여성은 자신의 지원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난 철도 들기 전에 땅이 생겼다. 이

62) 임순득, 「조옥희」, 『문학예술』 6월호, 1951.06, 20면.

63) 이 소설의 출판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는 김은정, 「북한의 영웅서사, 60년의 간극: 『조옥희』를 중심으로」(『민족문학사연구』 60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475-501면)을 참조할 것.

64) 안홍윤, 『조옥희』,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8, 92면.

뿐만 아니라 천덕꾸러기인 내가 지금은 리녀맹위원장까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다 김일성 장군님의 은덕이고 나라의 덕택이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처럼 어려울 때에 저 하나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내가 무슨 사람이겠는가!"[65] 즉, 김일성은 인민들이 목숨을 바쳐야 할 보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형대 앞에 섰을 때 조옥희는 "그래, 나는 오늘 조국의 딸,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의 참된 딸로서의 도리를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태연하고 당당하게 죽을 결심을 한다.[66] 이 장면은, 수령이 평범한 여성 조옥희를 윤리적 주체로 변모시키는 상징적 아버지의 역할을 함을 잘 보여고 있다.

2012년 김정일의 사망으로 수령이 김정은으로 세습되었다. 이러한 권력의 이행기에 "조국해방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가진 소설집들이 차례로 출판되었다: 『명령』(2010), 『빛나는 별들』(2011), 『고지의 영웅들』(2013), 『승리』(2014). 이중 『명령』은 한국전쟁기에 출판된 단편소설들을 모은 소설집이다. 이 소설집이 출판된 이유는 2011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선군과 강성대국이라는 선대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선전할 목적 때문이다.[67] 여기에 수록된 소설들은 수령의 명령을 기필코 완수한다는 결의가 영웅들이 발휘하는 애국주의의 원천임을 강조한다.[68] 다른 소설집들은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

65) 위의 책, 236면.

66) 위의 책, 362-363면.

67) 이밖에, 『빛나는 별들』(2011)은 1960~1980년대 전반, 『고지의 영웅들』(2013)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그리고 『승리』(2014)는 1960년대~2000년대 출판된 단편 소설들을 수록하고 있다; 김은정, 「북한의 한국전쟁 소설에 나타난 국가서사,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위하여≫ 1~4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66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1917.5, 11-15면 참조.

68) 이 소설집에 수록된 소설은 다음과 같다: 「불타는 섬」(황건), 「고향의 아들」(천세봉), 「보비」(리정숙), 「구대원과 신대원」(윤세중), 「벼랑에서」(박태민), 「복수의 기록」(리기영), 「명령」(리종렬), 「두 번째 대답」(석윤기), 「다시 만날 때까지」(박태영), 「보통 병사들」(김홍무), 「철교는 건너야 한다」(리병수), 「고성처녀」(김한윤), 「별들이 흐른다」(백현우), 「종군기」(김사량).

원 혹은 북한 주민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들의 영웅성과 애국심은 모두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수령의 명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나왔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의 출판 목적은 인민의 애국주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초로 하며, 이는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야 함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에 위의 시리즈와는 별도로 한국전쟁 때 출판된 전쟁소설들을 모은 『불타는 섬』(2012)이 출판된 것이다.[69] 이 중에서 황건의 「불타는 섬」은 1950년 9월 10일 UN군의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를 사수하여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리대훈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다. 남원진에 따르면, 이 작품은 1951년 첫 출판 이후 총 15회 재출판되었을 정도로 "조국해방시기 소설문학의 가장 훌륭한 대표작"의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로부터 평가를 받아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70]

이처럼 「불타는 섬」이 고평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명령』의 서문에 적힌, 이 작품에 대한 비평가 최광일의 평가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작품은 인민군 전사의 영웅적 투쟁의 사상적 기초로서 혁명적 수령관을 잘 제시했다.[71] 혁명적 수령관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령도 밑에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였다."고 보는 관점이다.[72] 최광일은 이 사상이 가

69) 이 소설집에 수록된 소설은 다음과 같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유항림), 「회신 속에서」(류근순), 「고향의 아들」(천세봉), 「기관사」(최명익), 「승냥이」(한설야), 「불타는 섬」(황건), 「구대원과 신대원」(윤세중), 「벼랑에서」(박태민), 「보비」(리정숙), 「강」(리갑기), 「첫눈」(변희근), 「나팔수의 공훈」(윤시철)

70) 남원진, 「황건의 〈불타는 섬〉 재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5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5-6, 9면.

71) 최광일, 「소설집 ≪불타는 섬≫에 대하여」, 『불타는 섬』,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5면.

72) 이것은 이미 한설야의 「격침」-1950년 7월 1일 주문진 전투의 영웅 김군옥의 전투기-에서 역설되었다; "김일성 장군은 동무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에도 오늘에도 조선 민족승리의 조직자이시며 령도자이십니다."

장 잘 표현된 장면으로 리대훈과 안정희-가상의 인물이자 전화수-가 마지막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나눈 대화를 제시하였다.

> 문득 정희는 먼 포성이 들려오는 동트는 하늘의 끝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각에도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불타는 월미도를 지켜보고 계시겠지요?" 하고 조용히 뇌였다.
>
> 대훈이 역시 숭엄한 생각에 잠기듯 정희가 바라보는 북쪽 하늘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다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
> "**보고 계실 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지도 앞에서 월미도를 꼭 보구 계실 겁니다.** … 원쑤들이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조국 땅 어디에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그중에도 미더운 당원들이 총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모든 정을 기울여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강조-인용자)[73]

1952년과 1955년 판본에서는 김명희(안정희)가 "지금 우리들이 월미도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을 장군께서는 아실까요?"라고 질문하자 리대훈은 "장군은 지금 지도 앞에서 월미도를 꼭 보구 계실 것입니다…. 원쑤들이 더러운 발을 쳐드는 조국 땅 어디에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그 중에도 믿어운 당원들이 총칼을 들고 서 있을 것을 사람들은 모든 정을 기울여 눈앞에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로 되어 있다.[74] 이 두 판본에서 월미도와 영웅들을 바라보는 눈은 김일성과 사람들(인민)이다. 하지만, 1958년 연안파 숙청을 끝으로 김일성이 조선로동당의 권력을 장악한 후 출판된, 1959년 7월 판본에서부터 월미도와 영웅들을 지켜보는 눈은 '김일성 장군'으로 바뀐다.[75] 특히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가 수립된 이후부터는

73) 황건, 「불타는 섬」,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149면.

74) 황건, 「불타는 섬」, 『불타는 섬』, 평양: 문화전선사, 1952, 24-25면; 황건, 「불타는 섬」, 『영웅들의 이야기』,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385-386면.

75) 황건, 「불타는 섬」, 『목축기』,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197-198면.

질문과 답변 모두에서 김일성의 지켜보는 눈이 강조된다. 즉, 1976년 8월 판본부터는 질문도 "지금, 이 시각에도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불타는 이 월미도를 지켜보고 계시겠지요?"로 바뀌고, 답변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지도 앞에서 월미도를 꼭 보시고 계실 겁니다…."로 바뀐다.[76] 이런 개작은 조선로동당의 집단 지도 체제가 수령의 유일 지도 체제로 바뀌고, 수령이 조국과 인민을 대체하여 인민군과 북한 주민이 발휘하는 충성심의 직접적 대상이 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무엇보다 2012년 판본을 분석해보면, 혁명적 수령이 김일성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넘어서 주체의 행동을 증언하고 평가하는 대타자(the Other-라캉의 용어로서 상징계의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77] '어디에나 존재'(omnipresence)하는 '수령의 응시'는, 리대훈과 안정희가 미군의 공격으로부터 월미도를 방어하는 전투에서 애국심과 영웅성을 발휘하고 기꺼이(with pleasure) 전사하게 만든다. 라캉(Lacan)은 이처럼 타인의 응시를 즐기는 심리 기제를 도착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도착에서 주체는 행위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타자가 향유하고자 하는 의지'(will-to-enjoy)의 도구로서 기능한다. 주체는 도구일 뿐이기에 여기에 질문이나 회의(懷疑)가 들어설 여지는 전혀 없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여기서는 혁명적 수령관-이 도착을 특징짓는다.[78]

이상에서 본 것처럼 한국전쟁 초기 애국주의 선전 노선과 그에 따라 창작된 영웅 전투기의 기본 서사는 한국전쟁 이후 출판된 전쟁문학을 통

76) 황건, 「불타는 섬」, 『승리자들』, 평양: 문예출판사, 327-328면.

77) 같은 작품집에 실린 윤세중의 「구대원과 신대원」도 수령을 '대타자' 즉 상징계의 아버지로 제시했다. 주인공 수철과 성구는 "어버이 수령님을 위하여 한 목숨 바치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삶이라는 신념을 갖고 미군의 고지 점령 시도를 저지하는 임무를 완수한다; 윤세중, 「구대원과 신대원」, 『불타는 섬』,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165면.

78) 라캉,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맹정현 · 이수련 역, 새물결, 2008, 280면. 밀레(Miller)는 도착을 '아버지로 향함, 아버지를 부름'(pere-version)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기제임을 강조한다; 김용수, 「폭력, 정치 그리고 라캉의 정신분석」, 『비평과 이론』, 제10권 제1호, 2005, 159-160면.

해 재생산된다. 1968년 유일사상체계 수립 이후에는 초기 서사에서 제시된 영웅적 행위의 목적은 '조국과 인민'에서 '수령'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 김정일의 선군시대를 거쳐 김정은의 '선군 혁명 령도' 시대에도 공화국 영웅 서사는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영웅성을 발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재생산된다. 이들 작품에서 수령은 최고의 군사적 이상형으로 등장하는 것을 넘어서, 영웅들의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행동의 원동력이자 이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상징적 아버지로 묘사된다.

5. 결론: 북한의 군사국가화의 문화적 장치, 공화국 영웅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전쟁 초기에 출판된 북한의 전쟁문학은 '공화적 영웅'이라는 군사적 이상형을 최초로 서사화하였으며, '공화국 영웅'의 애국심과 영웅성은 김일성과 그의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이후, 한국전쟁 관련 '수령형상문학'은, 4중 공화국 영웅 김일성은 최고의 군사적 이상형이며, 기타 공화국 영웅들은 모두 그의 가장 충실한 제자이고, 그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민군과 주민들이 발휘하는 애국심의 원천이라는 한국전쟁 초기 영웅 전투기의 주제를 계승하였다. 특히, 김정일의 '선군시대'와 김정은의 '선군 혁명 시대'의 공화국 영웅 서사는 수령을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푼 은인이자 주체의 영웅적 행동(혹은 보은)을 증언하고 평가하는 상징적 아버지로 묘사하였다.

공화국 영웅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공화국 영웅들'은 전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가적 목적, 즉 한국전쟁을 승리한 전쟁으로 집단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전후 복구에 주민들을 전쟁 같은 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1961년부터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선로동당의 전통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1974년 이후에는 주민들을 유격대 정신으로 무장시켜 국가 발전에 동원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소환되고 선전되었다. '공화국 영웅'은 북한 국민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서 그와 관련된 일화가 보도될 뿐만 아니라 사망 시에 최고지도자의 추모를 받았다는 국가적 미담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선전되었다.[79]

한국전쟁이 정전된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영웅들의 전투기에 묘사된 '공화국 영웅'의 정신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하였다.[80] 이것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군사 국가화를 추동하는 문화적 장치였던 '공화국 영웅'의 선전이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9) 1950년 7월 15일 공화국 영웅의 명칭을 수여 받은 '전기련'의 경우 영웅들의 전투기에 소개된 이래로 1955년 전후 복구 과정에서, 그리고 1966년 건군절을 기념할 때 청년과 학생들이 본받아야 할 '군사적 이상형'으로서 칭송되었다. 또한, 그가 2009년 사망하였을 때는 김정일이 추모 화환을 그의 영전에 보냈다. 한국전쟁 때 전사한 공화국 영웅 안동수의 경우 1995년 김일성이 직접 그의 유가족을 만나서 대화를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에게 김일성의 가장 우수한 제자로 인정되면 얻을 수 있는 영예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고, 수령을 향한 인정 투쟁에 몰두하게 한다.

80) 김정은, 「전승 세대의 위대한 영웅 정신은 빛나게 계승될 것이다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한 연설 (2021.7.27.)」, 조선로동당출판사, 2021.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권정룡 외, 『영웅들의 이야기』, 평양: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김수경, 『승리』,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4.

문학예술동맹 편, 『영웅들의 전투기』 1, 평양: 문화전선사, 1950.8.25.

문학예술동맹 편, 『영웅들의 전투기』 2, 평양: 문화전선사, 1950.9.13.

안동춘, 『50년 여름』, 평양: 문예출판사, 1990.

안동춘, 『푸른 산악』,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안홍윤, 『조옥희』,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8.

정기종, 『조선의 힘』, 평양: 평양출판사, 1992.

조선민주청년동맹, 『공화국 영웅전』 1, 평양: 민전출판사, 1958.4.15.

조선민주청년동맹, 『공화국 영웅전』 2, 평양: 민전출판사, 1958.8.31.

황건 외, 리명호 편, 『명령: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위하여 1』,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0.

황건 외, 엄용찬 편, 『불타는 섬: 현대조선문학선집 60』,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정치상학 교원들과 선전원들에게 주는 자료 제2집』, 평양: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8.

2. 2차 자료

강진호, 『북한의 문화정전 총서 불멸의 력사』, 소명출판, 2009.

기석복, 「조국해방전쟁과 우리 문학」, 『인민』, 제2호, 1952년; 재수록, 『현대문학비평자료집』 2, 이선영 · 김병민 · 김재용 편, 태학사, 1993.

김용현,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제1호, 2003, 181-198면.

김은정, 「북한의 영웅서사, 6년의 간극-〈조옥희〉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 2016.04, 475-501면.

김은정, 「북한의 한국전쟁 소설에 나타난 국가 서사」, 『외국문학연구』 6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7.5, 9-34면.

김일성, 「모든 힘을 전쟁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김일성, 「우리의 전법으로 싸워야 한다: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들과 한 담화, 1951.1.28.」, 『김일성 전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김일성, 「전시환경에 맞게 문화선전 사업을 강화하자, 문화선전상과 한 담화 1950년

8월 4일」,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김일성, 「조선 전체 인민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의 방송 연설」, 『로동신문』, 1950.6.27.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우리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의 방송 연설」, 『민주조선』 7월호, 평양: 민주조선사, 1950.7.15.
남북문학예술연구회 편저, 『전쟁과 북한 문학예술의 행방』. 역락, 2018.
남원진, 「황건의 〈불타는 섬〉 재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5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40면.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2권,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박동찬 편저,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배개화, 「한국전쟁기 북한문학의 '애국주의' 형상화 논쟁」, 『민족문학사연구』, 제73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143-176면.
서경석, 「6·25전쟁문학,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른가」, 『역사비평』 13, 1990 (겨울호), 400-410면.
안함광, 「8·15 해방 이후 소설 문학의 발전 과정」, 『문학의 전진』, 1950.8: 재수록 『현대문학비평자료집』 2, 이선영·김병민·김재용 편, 태학사, 1993.
엄호석, 「조선문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의 전진』, 1950.8; 재수록 『현대문학비평자료집』 1, 서울: 태학사, 1993.
유임하, 「1950년대 북한 문학과 전쟁 서사」, 『돈암어문학』 20, 돈암어문학회, 2007.12, 188-216면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 北京: 解放軍文藝出版社, 1991.
Donggil, Kim, "Stalin's Korean U-Turn: The USSR's Evolving Security Strategy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4, no. 1 (June 2011), pp. 89-114.
「라주바예프가 스탈린에게 보내는 전보: 김일성과 토론한 작전 지휘 문제, 1951년 1월 13일」, 러시아국가사회정치역사문서보관소(RGASPI), 문서군 558, 목록 11, 문서철 348, 9-11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 보도」, 『로동신문』, 1950.06.26.

<Abstract>

The ‘Hero of the Republic’ in North Korean War Literature

−Tracing the Origins and Cultural Evolution of the Military Ideal Type from the Korean War to the Present Day

Bae, Gaehwa

This paper illuminates that the portrayal of the ‘Hero of the Republic’ in war literature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the Korean War serves as the origin of North Korea’s military ideal type. On June 30, 1950,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North Korea instituted the honorary title ‘Hero of the Republic’ as a strategic measure to ensure swift victories in the ongoing war. The title was bestowed upon courageous soldiers of the Korean People’s Army (KPA) who demonstrated heroism on the battlefield. On August 4, following Kim Il-sung's directive to propagate the stories of the ‘Heroes of the Republic,’ North Korean writers published “Yeongungdeul-ui Jeontugi [Heroes' Battle Stories].” These stories asserted that these heroes won a victory in battles by imitating Kim Il-sung’s patriotism, rooted in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and his strategic brilliance. This narrative construction established a semantic framework wherein Kim Il-sung emerged as the “best military ideal type,” and KPA soldiers bestowed the title “Hero of the Republic” were depicted as his disciples. Throughout the post-war recovery process from August 1953 and the later socialist construction phase starting in 1958,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stilled heroes of the Republic as role models among the North Korean people. Subsequently, the ‘Immortal

History' series supplied a concrete narrative reinforcing the notion that Kim Il-sung was the leader and organizer of the victory in the Korean War. Even during Kim Jong-il's Songun era, marked by North Korea's transition into a fully-fledged military state, and the succeeding Kim Jong-un's Songun Revolution era, literary works featuring the heroes of the republic continued to be published. In these works, the portrayal of the supreme leader has evoloved from the best military ideal type into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patriotic and heroic actions of the heroes as well as the symbolic father who gazes and evaluates their actions. In summary, this paper highlights that the narrative of the 'Hero of the Republic' has been used as an essential cultural device propelling North Korea's militarization from the outset of the Korean War to the present day.

Key words: war literature, hero of the republic, military ideal type, Kim Il-sung, Korean War, militrary state, cultural device

투 고 일 : 2023년 11월 26일　　심 사 일 : 2023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3년 12월 22일